

1960년대 과학소설의 팽창주의 욕망과 남성성

—한낙원의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를 중심으로

장수경*

국문초록

이 글은 1960년대 한낙원의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를 중심으로 당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과학 소설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미지를 형성하였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1950-60년대는 미소냉전 체제를 중심으로 우주 개척에 대한 열광, 유행, 최면(催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들의 욕망이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 매체에서 과학소설의 형식으로 유통, 소비되었다. 아동청소년을 위해 창작된 과학소설에서는 우주개척에 대한 팽창주의 욕망이 발동하면서 두 가지 서사적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과학소설에서는 팽창주의 욕망과 소년영웅의 귀환을 통해 강인한 남성성을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과거 제국주의적인 남성성의 문화가 병사와 영웅의 이미지로 남성성의 문화를 구성했다면, 1950년대 후반에는 전쟁의 폐해로 인해 남성성이 위축되면서 병사와 희생자(불구자)의 이미지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로 오면 과학소설을 통해 소년영웅이 귀환하고 팽창주의 욕망이 드러난다. 다만 모험의 장소가 지구에서 우주(화성과 금성)으로 공간을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불완전한 타자들과의 분리를 통해 완전한 남성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남성중심의 문화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과학소설에서 여성은 통신원과

* 목원대, dongwhasarang@hanmail.net

같은 부차적인 인물로만 기능하며, 이들은 외계인(敵)에게 갇힌 몸이 되거나 우주선에서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존재한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적에게 납치되어 남성들이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까지 침입하는데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통해 지도자적 남성성이 강조된다. 또한 외계인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늪은 개구리’나 디즈니에 나오는 ‘오리’ 같은 우스꽝스럽고 징그러운 동물적인 이미지로 비하된다. 이는 고결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과 외계인을 타자화한 것이다.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남성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이는 과학소설에서 우주에 대한 팽창주의 욕망과 함께 강인하고 완전한 남성성을 문화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주제어: 과학소설, 팽창주의 욕망, 우주, 제국주의적 남성성, 전쟁, 소년, 영웅

목 차

- | | |
|-------------------------|-------|
| 1. 서론 | 타자들 |
| 2. 팽창주의 욕망과 소년영웅의 귀환 | 4. 결론 |
| 3. 완전한 남성성에 대한 욕망과 불완전한 | |

1. 서론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을 중세와 구별하고자 할 때 예술가 개개인들은 서로 다르고 대립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하나의 일정한 이념적 연관 속에 있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정신’ 또는 ‘문화’라는 것의 구성에 함께 작용하고 이바지하였음을 인정한다. 이때 우리가 사고하는 것은 존재(Sein)의 통일성이 아니라 방향(Richtung)의 통일성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가 개개인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 유사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공동의 일에 함께 참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 시대의 정신과 문화는 그 시대의 고유한 방식과 방향이 하나의 의미개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¹

이런 차원에서 1960년대 한국 아동청소년을 위해 창작된 한낙원의 과학소설의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냉전, 과학, 우주, 민족, 국가 등과 관련된 믿음과 욕망이 어떻게 소설의 문법 안에서 반복, 모방되며 그 시대의 정신과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며 의미를 구성하였는지를 조망하는 과정이다. 1950-60년대는 미소냉전 체제를 중심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발맞춰 ‘우주’ 개척에 대한 열광, 유행, 최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중들의 욕망이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관점에서 생산, 유통되었다.

1952년 11월 1일 미국에서 진행한 수소폭탄 첫 실험으로 인해 태평양에 있던 섬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해 소련은 1953년 8월 12일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첫 핵실험을 진행했다. 두 차례 핵폭발로 새들이 불에 타서 공중에서 떨어졌다. ‘슈퍼폭탄’에 대한 이 실험은 미소 양국으로 하여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목적 상실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공포를 처음으로 갖게 한 사건이었다.² 나아가 1954년 3월 1일 태평양에서 실시된 미국 핵실험³의 대대적인 성공과 1955년 11월 소련이 공중 투하 열핵폭탄 실험 성공, 195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10월 4일 첫 인공위성 스포트니크를 궤도에 올려놓는 역사적 사건이 연이어

1 에른스트 카시러, 박완규 역, 『문화과학의 논리』, 길, 2007, 201~203면.

2 존 루이스 개디스, 정철·강규형,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2010, 93~94면.

3 1954년 3월 1일에 태평양에서 실시된 미국의 핵실험은 핵전쟁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세계문명의 종말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이다. 폭파규모가 15메가톤급으로 실험 전 예상했던 규모인 5메가톤의 3배이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75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존 루이스 개디스, 위의 책, 96면.

일어났다. 프랑스는 영국, 미국과 함께 해온 핵전략 공조를 깨고 1960년 첫 원자폭탄을 자체적으로 시험하였다.⁴ 또한 1969년 미국의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무사히 귀환하였는데, 이로 인해 마치 우주시대가 곧 개막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았다. 반면, 원자력과 우주경쟁, 이런 일련의 과학적 성과들은 냉전체제 하에서 ‘전쟁’, ‘핵무기’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정, 마찰, 공포”가 “제한전쟁을 확전”으로 바뀌 “의미 없는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상상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핵에 대한 과열경쟁은 “지구상에서 인류라는 생명체를 멸종시킬 만한 열전(熱戰)”을 유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유포시키며 인류에게 경종을 울린다. 인류절멸의 공포 속에서 1963년 제한적 핵실험 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 등이 새로이 수립되었다.⁵ 미소의 전략수정은 ‘우주’, ‘로봇’, ‘화성’, ‘금성’ 등 “지구 밖으로 나가보자는 새로운 호기심”과 함께 인류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우리들의 숙제”로 언급된다.⁶ 한낙원은 “소련의 스포트니크 1호에 뒤이어 미소 양국은 경쟁이나 하듯이 우주로켓을 발사하여, 우주여행의 꿈은 착착 우리 눈앞에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⁷ 과학발전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감을 드러낸다.

원자력과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한낙원은 1950~60년대 과학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잃어버린소년』(연합신문 연재1959.12~1960.4), 『금성탐험대』(학원연재 1962.12~1964.9), 『우주항로』⁸(가톨릭소년연재 1963.1~1964.1) 등 과학소설을 장기간 연재하였다. 『우주항로』는 이후 속편(가톨릭소년

4 위의 책, 196면.

5 존 베이넌, 임인숙·김미영,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출판부, 2011, 19~119면 참조.

6 안철구, 「수수께끼에 싸인 우주」, 『가톨릭소년』, 가톨릭소년사, 1966, 1, 74~78면.

7 한낙원, 「후기-우주여행 이야기」, 『잃어버린 소년』, 배영사, 1963, 208면.

8 한낙원, 『우주항로』, 계몽사, 1987.

연재(1966.2~1968)이 장기간 연재될 정도로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우주항로』는 단행본으로 엮을 때 전편의 내용에 속편 1회 분량인 ‘지구로 귀환한 서사’까지 묶어 출간하였다. 『가톨릭소년』에 연재된 속편에서는 소련으로 간 서사부터 화성인과 안드로메다인이 찾아오는 바람에 지구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까지 서사가 확장된다. 본고에서는 “『소년』잡지에 연재되었던 글을 단행본이 되도록 정리해 본 것”(269면)이라는 작가의 견해를 존중해 단행본을 완성작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금성탐험대』는 잡지 『학원』에 연재된 것을 1967년 학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금성탐험대』는 소년세계사에서 1957년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실물이 확인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실물이 확인된 것으로는 『학원』 잡지에 실린 것이 가장 빠르다. 따라서 『금성탐험대』의 경우 소년세계사본을 최초 출판연도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학원사본의 경우 『학원』지에 실린 것을 그대로 출간했는데, 2013년 창비에서 학원사 단행본을 저본으로 삼아 창비 청소년문학으로 출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원』 잡지에 실린 것을 참조하며, 창비본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금성탐험대』⁹와 『우주항로』는 1960년대 초반 장기간 아동청소년 잡지에 연재되었고, 이후 단행본으로 묶여 1960년대 청소년들에게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한낙원의 대표작이다. 두 작품은 1960년대 SF적 상상력이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었고,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연구 분야에서 한낙원의 과학소설에 대해 의미 있는 몇 개의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권혁준은 SF아동청소년 문학의 특징을 시공간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피

9 한낙원, 『금성탐험대』, 창비, 2013.

고 있다. 권혁준은 과학소설에서 우주로의 시공간 확장이 안정지향적이고 여성적인 인물 위주의 서사에서 모험과 개척을 지향하는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서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¹⁰ 권혁준의 논의는 초창기 한국 SF의 시공간과 특성, 범주에 대해 계보를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이구는 한낙원의 과학소설이 십대청소년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소년소녀를 등장시켜 자기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외계인과의 만남, 로봇이 등장하는 설정 등을 통하여 근대화과 과학이 결합되어 당대인들이 가졌던 진보의 꿈이 서사 안에 투영되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이구는 『금성탐험대』가 새로운 우주개척담을 본격적인 중심이야기로 설정하고 모험 서사를 통해 1960년대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과학소설의 한 경지를 일구어냈다고 하였다.¹¹

김지영은 두 편의 논문에서 1960년대 과학소설의 특징을 ‘합리적 환상성’과 미국의 ‘스페이스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 장르관습을 형성한 점, 모험소설의 전통과 맥락 속에서 과학소설이 창작, 유통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하였다.¹² 김지영의 논의는 한국과학소설에 대한 장르의 형성과정과 특성을 1960-70년대 작품의 계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임지연은 『잃어버린 소년』과 『금성탐험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10 권혁준, 「SF아동청소년문학과 과학적 상상력-SF소설의 개념, 특성, 범주와 한국 SF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시공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12, 7~39면.

11 김이구,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창비어린이』3(2), 창비어린이, 2005.6, 156~171면.

12 김지영, 「한국 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징에 관한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2,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375~397면/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35, 동남어문학회, 2013.5, 125~149면.

‘남자-과학자-소년’으로 범주화를 시도하였고, ‘소년’을 새 시대를 이끌어 갈 과학적 지도자로 호명하는 과정에서 몸의 이상화 방식을 동원하였다고 보았다. 임지연은 두 작품이 ‘소년’들의 몸에 과학지식과 높은 도덕성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소년들을 특권적 존재로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¹³

모희준은 냉전시기 한낙원의 과학소설이 계몽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과학의 발전이 자원이 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한국인에게 낙관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¹⁴

손진원은 1960년대 과학소설 중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과 『금성탐험대』의 두 작품이 ‘애국애족=선’이라는 공식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평하였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우호적 관계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미국 편들기’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면서 과학소설에서 미국에 대한 옹호의 태도가 당대 한국 외교가 선택해야 할 현실과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⁵

최애순은 한낙원의 아동청소년 과학소설이 국가에 공헌하는 기술자 지망생을 형상화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시기 과학소설에는 당대 교육 이데올로기와 아동에 대한 인식,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 등이 굴절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비판한다. 최애순은 당대 과학소설에서 제시한 꿈이 독자에게 단순 기능직을 양산하기 위한 희망 고문에 불과했으며, 그런 꿈을 빌미로 소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¹⁶

13 임지연, 「초기 한낙원의 과학소설에 나타난 ‘소년’의 의미」, 『한국언어문화』 6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279~305면.

14 모희준, 「냉전시기 한국의 과학소설에 구현된 국가관 연구」, 선문대 박사논문, 2015, 1~154면.

15 손진원, 「1960년대 과학소설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7, 1~83면.

16 최애순, 「초창기 SF 아동청소년문학의 전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12, 41~88면.

그동안 선자들은 냉전체제 하에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근대화 등의 관점에서 한낙원의 과학소설을 논하였다. 대부분의 논의가 『잃어버린 소년』과 『금성탐험대』에 한정된 논의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주항로』는 연구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우주항로』가 단행본으로 간행되기는 하였지만 『가톨릭소년』에 장기간 연재되었고, 전편과 속편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은 1960년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가톨릭소년』과 『학원』에 장기간 연재되었고, 곧바로 단행본으로 출간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는 점, ‘화성’과 ‘금성’ 개척이라는 욕망을 유사한 서사 패턴으로 보여준다는 점, 소년과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 지구인과 외계인의 조우와 관계 설정이 드러난다는 점 등 당대 과학소설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선자들의 연구 성과를 긍정적으로 계승하면서 한낙원(韓樂源 1924~2007)의 1960년대 초기 작품인 『금성탐험대』와 『우주항로』를 중심으로 과학소설에서 냉전체제와 우주개척에 대한 과학적 열망이 남성성과 연관되어 어떻게 의미망을 구축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팽창주의 욕망과 소년영웅의 귀환

한낙원은 『잃어버린 소년』과 『우주항로』의 공간을 ‘한라산 우주과학연구소’와 ‘우주공간’, ‘화성’으로, 『금성탐험대』에서는 ‘하와이 우주항공교’와 ‘우주공간’, ‘금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후 시대의 남성성을 훈련하는 이런 공간은 아직 불완전한 소년이 완벽한 남성성을 지닌 존재로 훈련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 상상된 토포스로 기능한다. 『우주항로』에서 15살인 민호는 가난하여 야간중학교에

다니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지만 무슨 일이나 열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참을성이 많은 소년으로 묘사된다. 민호는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이미 인정받았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존재로 이미지화된다. 민호의 성실성은 “혼자 남아 새해의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희생정신과 준비성이 철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관인 조주필은 민호에게 “모험심 하나만 더 있다면”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이런 조주필의 소망이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줄 존재로 ‘소년’을 내세운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민호 군을 생각해 낸 거야. 나는 민호군이 무슨 일이나 열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한데다 또 참을성이 많은 소년이란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 오늘도 민호 군은 남들이 다 가버린 뒤에도 혼자 남아 새해의 준비를 하고 있었잖나…….”

민호는 조 주필이 자기를 과분하게 치켜 세우는 바람에 얼굴이 빨강게 달아올랐다.

“그러니까 민호 군한테 모험심 하나만 더 있다면, 내가 계획하는 일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될 줄 믿는데, 어떨까?”
(중략)

민호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그런데도 민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것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모험심이였다. 민호는 그 모험심을 누를 길이 없었다. (밑줄은 인용자 강조, 13~14면)

『금성탐험대』에서는 우주비행사로 고진과 박철이 ‘소년’으로 설정되는데, 소년들은 “이상적인 남성의 몸”¹⁷으로 성장해야 할 존재로 호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영국 제국주의가 빅토리아 시기 남성다움의 핵심에 놓았던 “소년다움”은 다름 아닌 “모험과 영웅주의”에 대한 선동을 통해 제국주의적인 남성성을 상상하도록 억압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남성성이 지닌 모험심과 “맹목적인 열정”¹⁸은 1960년대 과학 소설에서 우주로의 ‘모험’이 ‘소년’에게 가족이나 학교, 개인적인 행복보다 ‘인류’, ‘국가’, ‘민족’을 위해 우선시 되는 특별한 집단의 가치로 제시되면서, 주인공인 ‘소년’이 ‘우주’라는 미지에서의 모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일”로 각인된다. ‘모험심’은 소년에게 이미 태생적으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근원적인 욕망의 발로이며,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누를 길 없”는 남성만의 맹목적인 열정으로 전유된다. 모험에 대한 원초적 욕망은 『금성탐험대』에서 중년 남성인물들이 우주의 낯선 공간에서 과학자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낯선 우주공간에서 수행하는 모험 장면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된다.

“두 분의 모험심이 그렇게 강한 줄은 몰랐군요.”

“대장도 당해보면 알 것입니다. 역시 호기심이란 죽음보다도 강한 모양이죠.”

윌리엄 중령에게 정한 시간을 넘긴 것을 변명이라도 하듯이 모리스 교수가 말했다.

“호기심과 탐구심은 역시 통하는가 보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에요. 하지만 호기심이 목적보다도 위라고 생각하세요?”

윌리엄 중령이 은근히 말투를 바꾸었으나 두 사람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모리스 교수가 물었다.

17 임지연, 앞의 논문, 287면.

18 존 베이넌, 앞의 책, 86면.

“아뇨, 호기심이 목적보다 위가 될 수 있을까구 물은거요.”

윌리엄 중령이 되풀이하였다. 모리스 교수는 그제야 말뜻을 알아듣고 얼굴을 붉혔다.

“대장 같으면 그런 경우에 쉽사리 돌아설 수 있었겠어요.” (106면)

『금성탐험대』에서 우주선에 오른 중년 과학자들은 불시착한 공간에서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탐험하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과학자들에게 “호기심이란 죽음보다 강한” 열정으로 묘사되는데, ‘호기심’과 ‘목적’ 사이에서 불화를 드러낼 정도로 남성들의 원초적 욕망이며 자기 일에 대한 맹목적 열정으로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금성에서 알파성인의 지하 도시에 몰래 침투한 후 “무서움과 호기심”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인물들이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모하지만 위험한 탐험을 선택하는 것으로 반복된다. 이처럼 인물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모험’에 나서고, 죽을지도 모를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호기심을 우선적 가치로 내세우며 탐험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금성에서 박철후보생이 “만일 사막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발견”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 미옥이 “뒤에 다른 탐험대가 사막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먼저 온 우리 수치가 아네요?”(298면)라고 편을 드는 장면에서도 반복, 변주된다. 이처럼 과학소설에서 “낮선 타자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과 공포”¹⁹는 인물들로 하여금 양가적 상태에서 모험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1960년대 과학소설에서 ‘호기심’, ‘모험심’의 정신적 가치는 우주개척 시대 과학적 지식을 갖춘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과 연결된다.

탐욕과 대량학살,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19 임지연, 앞의 논문, 279~305면.

통해 제국주의적 남성다움의 정체성이 ‘병사’와 ‘영웅’의 이미지에서 ‘병사’와 ‘희생자(불구자)’의 이미지로 변모되었다면,²⁰ 1960년대 과학소설에서 남성다움의 정체성은 호기심이 강하며 모험에 열정적인 과학자와 우주인의 이미지로 상상된다. 주인공인 소년은 과학 영웅이며 완강한 체력을 겸비한 우주인으로 귀환한다. 이 시기 과학소설은 대화나 묘사를 통해 모험에 대한 끝없는 욕망, 여성적인 것에 대한 불신, 인종차별주의, 반공주의 등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소환하며, ‘민호’, ‘박철’, ‘고진’ 등 정형화된 소년영웅을 창조해내고, 영웅적 임무 수행을 통해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실천하고 성공하는 인물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애국자이며 새 시대 인재의 자질을 강조한다. 다만 병사와 영웅이 활동하는 공간이 지구상의 전쟁터에서 ‘우주’라는 미개척지로 이동했을 뿐이다.

따라서 소년들은 엄격한 훈련과 군사주의와 유사한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통해 강철처럼 단련되고, 강철 소년들에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처럼 유일한 출구이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취감과 기쁨을 주는 이상화된 남성들의 특권으로 전유되었다. 전쟁이 질서와 정밀함, 강함, 전투에서의 용맹함 등의 강인함을 통해 “완강성”²¹을 갖춘 영웅적 남성성을 형성하는 장이 된다²² 우주로의 탐험도 유사한 방식으로 강인하고 완벽한 남성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남성성은 군사주의 문화 안에서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을 갖춘 병사의 이미지로 형성, 유포되었던 것처럼 과학주의 문화 안에서 남성다움은 전통적인 전투

20 신영덕은 남북한 전쟁소설을 논하면서 남한문학에서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형상화할 때 부상병의 이미지와 죽음 등으로 포착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영웅적 형상화’와 ‘초라한 부상병’의 이미지는 북한문학에서는 영웅성, 완강성으로 표상된다고 보았다.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전쟁소설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14, 한국현대문학회, 2003.12, 75~109면.

21 전쟁기 북한 소설에서 “완강성”은 영웅적 남성인물을 창조할 때 나타나는데, 1960년대 과학소설에서 이와 같은 인물은 전형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신영덕, 위의 논문, 75~109면.

22 존 베이넨, 앞의 책, 64~70면.

력을 갖춘 이미지로 반복되며, 여기에 과학과 결부되어 “과학지식과 높은 도덕성이 체화된”²³ 신세대의 이미지로 재생산되었다. 1950~60년대 냉전 체제에서 소년들은 ‘우주’, ‘과학’ 코드와 결합되며 우주 개척자라는 견고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식량난, 자원의 고갈 등으로 허덕이는 인류의 새로운 생활권”²⁴으로 우주는 새롭게 개척해야 할 희망적 토포스로 상상된 것이다. 따라서 과학소설에서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욕망이 지구가 아니라 상상된 ‘우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1,2차 세계대전 중 나타난 패권(霸權)주의적 가치는 과학소설 안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전개되고 인류 공동체의 고귀한 정신적 가치로 귀환하며 ‘식민지개척’의 서사에서 ‘우주개척’의 모험 서사로 전유되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군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남성성의 도제훈련’²⁵은 모험이 가능한 ‘우주 학교’와 ‘우주’로 무대가 확장된다. 『우주항로』에서는 한라산 우주과학연구소와, 우주공간인 화성이 도제훈련의 장소이며 전쟁터로 기능하고, 『금성탐험대』에서는 하와이 우주항공학교와 금성이 도제훈련 장소이면서 전투하는 토포스로 묘사된다. 과학소설에서 주요 서사의 맥락은 소년으로 하여금 ‘우주학교’와 ‘금성’, ‘화성’ 등 우주로의 탐험을 꿈꾸고, 상상된 토포스 안에서 ‘남성다움’, ‘소년다움’을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며 애국심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교양하는 계몽주의적 시각에 맞춰져 있다.

“꽤 씩한 놈 같으니, 내가 그렇게 기자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나를 속여? 너는 응당 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23 임지연, 앞의 논문, 287면.

24 한낙원, 「지은이의 노트—인류의 생활권이 된 우주」, 『우주항로』, 계몽사, 1987, 269면.

25 존 베이언, 앞의 책, 65면.

한박사는 민호를 끌고 우주선 밖으로 나갈 때 쓰는 이중문이 달린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우주복과 우주 헬멧이 걸려 있었다.

한박사는 민호에게 선의 우주복을 입히고 헬멧을 쓰게 한 뒤 민호의 등에 산소통까지 매어 주었다.

“어서 꺼져라!”

한박사는 이중문을 열고 민호를 그대로 우주선 밖으로 떠밀어 버렸다.

“으아아.....!”

민호는 죽는 시늉을 하며 검은 하늘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우주항로』, 47면)

민호는 우주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존재로 부각된다. 이는 한박사가 ‘학생기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민호를 우주복과 우주 헬멧만 씌운 채 우주선 밖으로 내쫓는 장면에서 반복, 변주된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민호는 “꿈과 이상을 쫓는 강한 남성이기를 원한다.”²⁶ 점에서 ‘인조피부’²⁷를 지닌 제국주의 군인의 이미지로 부각된다. 우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민호는 우주선 밖으로 쫓겨나지만 불안, 공포, 두려움 등의 감정에 무감각한 인물처럼 묘사된다. 이 장은 “소름끼치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주선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한 줄의 서술만 빼면 오히려 호기심으로 우주 적응훈련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 3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서술된다. 이런 장면은 서사적 팝진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공포와 두려움을 원초적인 ‘호기심’으로 즐긴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호를 낭만

26 김남혁 「1950년대 미국의 한국전쟁 재현물에 드러난 개인과 집단의 특성—제임스 설터의 소설 『사냥꾼들』과 할리우드 영화 〈추격기〉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7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6, 165~199면.

27 제국주의적 남성성은 깊은 불안감을 숨기는 내면세계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를 일컬어 ‘인조피부’로 묘사한다. 존 베이넌, 앞의 책, 114면.

적 모험을 재현하는 인물로 형상화한다.

그런가하면, 지구나 달보다는 작지만 달도 별도 아닌 물체가 허공에 뜬 채 빛나고 있었다.

〈저게 뭐지?〉

민호는 호기심이 나서 우주복에 달린 망원경으로 그 빛나는 물체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바로 우주 정류장이었다. 우주 정류장은 큰 자동차 바퀴 모양이었으며, 그 둘레에는 우주 정류장을 완성하기 위하여, 허리에 끈을 맨 사람들이 연장을 들고 쇠판 등을 밀며 헤엄치고 있었다. (49면) 어떤 사람은 우주 정류장 바퀴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주 작업선을 물고 짐을 나르기에 바빴다.

〈사람이 이렇게 우주 공간을 헤엄치며 작업을 할 수도 있구나!〉

민호는 비로소 자기가 우주 한끝으로 빠르게 떨어져가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민호는 마음이 놓였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우주선 위를 걸어보았다.

“허, 참 기분 좋은데!” (중략)

이런 걸음에 익숙해지자, 이번에는 우주선 밑으로 돌아 거꾸로 붙어서 걸어보았다. 이것도 위에서 걷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 같지 않았다.

“참, 재미있는데.” (50면)

위의 서술에서 보면 민호는 위기의 상황에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인물일 뿐 아니라 우주 정류장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신기한 듯 구경하거나, 우주선 위를 걷는 연습을 하며 쾌감을 느끼는 강인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런 서술은 민호를 강인한 신체와 정신을 훈련하는 병사의 모습으로 상상하도록 이미지를 고착화한다. 이와 같이 소년인 민호는 완강한 투사적 이미지를 획득하고 증명하는데 몰두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민호는 한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도 거침없이 과학적 전문 지식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우주에 대한 지식에 해박하며, 민첩하고 총명하기까지 하다. 이런

연속된 장면들의 배치는 민호가 우주에서 강인한 신체와 정신을 겸비한 이상화된 남성으로 완성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특별 군사훈련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금성탐험대』에서 고진이 우주에서의 모험을 통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파일럿으로 설정되는 서사에서 반복, 변주된다. 이처럼 과학소설에서 ‘몸은 권력과 힘을 내포’하는데,²⁸ 강철 같은 소년들은 신체능력, 전투능력을 스펙터클한 전투와 훈련의 반복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제국주의적 호전성”²⁹을 갖춘 인물로 완성된다.

3. 완전한 남성성에 대한 욕망과 불안정한 타자들

영화에서 지도자는 초인간적인 힘과 결단과 지략을 발휘하는 자신의 행위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규정된다.³⁰ 영화에서 남성 지도자의 내면은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긴 채 늘 이성적이고 강하게 현실에 대응하는 군인처럼 묘사되는데, 『우주항로』에서 한박사는 완벽한 인물로 등장한다.

한박사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들이 적이 아니라면 왜 우리를 포위합니까?”

허조종사가 숨가쁜 목소리로 대들었다.

“우리를 포위하는 것인지 경비하는 것인지 아직은 모르잖소.”

“경비요? 경비하는데 저런 광선 무기를 쏘니까?”

28 존 베이넌, 앞의 책, 113면.

29 임지연, 앞의 논문, 293면.

30 존 베이넌, 앞의 책, 114면.

“허 조종사,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저 광선이 무기 같지는 않소. 자세히 봐요.”

“무기가 아니면 그게 뭐니까?”

“자, 이 온도계를 봐요.”

박사는 우주선의 바깥 온도를 재는 온도계를 가리켰다.

“만일 저들이 쏘는 광선이 우리 우주선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라면, 우리 우주선 바깥쪽이 뜨거워졌을 게 아니오.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우주선은 아무 일도 없단 말이오.”

허 조종사는 한 박사의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지나치게 흥분한 것을 깨달았다.
(67면)

제국주의적인 남성성을 말할 때 전형적인 전사의 이미지는 극단적인 억압과 위험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도박사’의 기질로 이미지화되기도 한다. 전사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감정은 ‘애국심’과 전투에서 적과 맞설 ‘용기’뿐이다. 『우주항로』에서 한박사는 미국에서 과학자로서의 최상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포기하고 오직 ‘애국심’ 하나만으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한국으로 귀환한 인물로 그려진다. 게다가 한박사는 전사이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강직하고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결단력과 놀라운 지략을 발휘한다. 지도자인 한박사는 해박한 의학적 지식과 천문우주에 대한 풍부한 지식, 수학적인 정확한 계산능력 등 과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갖춘 인물의 전형이다. 한박사는 객관적인 것, 현실적인 것,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묘사들과 연관되어 서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만한 지도자로 상징화된다. 따라서 한박사는 우주선이 외계인에게 납치될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침착하며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이성적으로 관찰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변

인물들을 강인한 리더십으로 이끌어나간다. 이때 지도자인 한박사의 판단은 정확한 분석 속에서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영웅서사의 패턴을 따른다. 즉, ‘한박사’라는 인물은 소설 안에서 합리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지닌 신세대가 전수받아야할 남성성으로 매개된다. 전통적인 제국주의적 남성성을 매개하는 구성물들 안에 냉전체제 하에서 과학적 지식을 갖춘 한박사의 애국심과 “동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야할 길”(182면)을 가는 전사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결합하는데, 이는 남성성의 전형적인 표식인 강력한 리더로서의 자질로 형상화된다. 이와 같은 리더의 자질은 한박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호’라는 소년을 새 시대의 완강함을 갖춘 리더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 반복, 변주된다.

영웅적 인물의 전형은 고대 그리스의 서사적 무용담에서 찬양되는 영웅과 유사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의 서사적 무용담에서 영웅은 자신의 집단에서 용감한 활동가이고 전투가 벌어지면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민첩하며 전술과 지략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과 용기를 발휘하는 탁월한 재능을 갖춘 전사로 형상화된다. 이런 영웅적 인물은 자신의 지도자와 대의에 충성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주를 다룬 과학소설에서는 이런 그리스의 서사적 무용담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우주항로』에서의 한박사, 민호 『금성탐험대』에서 윌리엄중령, 박철, 고진 등의 남성인물을 완전성을 갖춘 이미지로 재현한다. 영웅적 인물은 전투가 벌어지면 적진에 자발적으로 뛰어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나약한 개인을 구한다’³¹는 점에서 전통적인 용기 있는 남성과 유사하다.

『우주항로』에서 민호는 적에게 납치된 옥경을 구하기 위해 독고선과 함께 화성인 기지로 침입한다. 독고선이 성급하게 옥경을 구하려다가 죽을

31 김남혁, 앞의 논문, 186면.

을 맞이하자, 민호는 “독고선의 시체를 안고 슬픔에 잠겨 분연히 일어”(168면)나며 “나도 싸우다 죽을테다! 자, 덤벼라!” 하고 울부짖는다. 민호는 전우애를 통해 여성을 구출하고 영웅적 남성다움을 쟁취한다. 또한 화성인과 마가스인의 전쟁이 벌어지자 두 진영을 오가면서 평화적으로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계와의 통합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다. 이는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세계전략이 ‘공포’를 중심으로 펼쳤던 봉쇄의 상상력을 거둬들이고 ‘통합’의 상상력으로 수정했던 상황을 투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의 결말이 ‘통합’이라는 가치로 수렴되는 것은 당대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적 가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³² 민호는 서로 다른 이질적 세계를 오가며 ‘열린 문’과 같은 기능을 한다. 또한 민호는 단순히 두 세계의 중재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호는 마가스인과 화성인이 왜 상대편과 싸우면 안 되는지에 대해 군사전문가처럼 전문적인 병법(兵法)을 동원하여 설득의 수사학을 전개하는 협상전문가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민호가 화성인과 마가스인이 이룩한 문명의 유사점을 근거로 설득하는 장면은 인류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나뿐인 지구상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소년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을 강조하는 서사는 『금성탐험대』에서 고진의 활약에서도 반복된다.

“대장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요. 경험과 판단력으로 할 수 있소. 우리는 젊은 대장의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소.”

“옳소, 젊은 대장을 받들시다.”

32 김남혁, 같은 곳.

다시 박수가 터졌다. (386면)

『금성탐험대』에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대원들은 최종적으로 고진을 우주선의 지도자로 선출한다. 그것은 고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지도자로서의 영웅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동시에 고진은 미소 양국의 우주비행사로서의 경험과 한국인이라는 제3자의 위치를 통해 중립적인 인물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더로 부각된 것이다. 젊은 리더를 중립적인 위치에 선 인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에서는 적국으로 ‘소련’은 등장하지만 ‘북한’이란 존재는 삭제된 채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만큼 ‘북한’이라는 존재는 1960년대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존재이고, 삭제하고 싶은 타자로 부각된 것이다. 『금성탐험대』에서 미국 우주대원이던 고진은 적국인 소련 우주선에 의해 납치되고 CCCP호에 강제로 탑승해 금성 탐험에 나선다. 하지만 고진은 적진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높은 도덕률을 견지한다. CCCP호가 위기에 처해 홀로 우주선에 남았을 때도, 외계인의 침략을 당했을 때도 소년인 고진은 당황하지 않고 인조인간의 몸처럼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적과 싸워서 살아남은 영웅으로 묘사된다. 알파성인의 지하도시에서도 고진은 인질로 붙잡힌 지구인들을 구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영웅적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현해낸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우주과학모험소설’인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에서는 제국주의적인 영웅이 우주개척 서사를 통하여 새 시대 영웅의 이미지로 재구축된다.

과학소설에서 중심인물을 영웅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타자로 설정되는 인물은 ‘여성’과 ‘외계인’이다. ‘여성’과 ‘외계인’은 완전성을 갖춘 남성성의 대립적인 인물로 존재하는데, 타자인 ‘여성’과 ‘외계인’은 오염되거나 열등한 존재로서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과학소설에서 남성성이

‘여성적인 것’에 대한 우월성과 거부에 기반하고 있음은 서사의 곳곳에서 표출된다. 이는 그리스 서사 무용담이나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서사에서 여성이 서사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 인물로만 기능하며 남성의 필요에 의해서만 봉사³³하는 양상과 유사한 패턴이다. 『우주항로』에서 통신원으로 탑승한 옥경은 거의 역할이 없이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다가 남성 인물들이 화성 탐험에 나서는 동안 우주선에 홀로 남아 우주선을 지키는 수동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옥경은 우주선에서 개를 돌보며 있다가 적에게 납치된다. 납치된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남성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적진에 뛰어들는다. 이때 남녀 인물 사이에서 전개되는 멜로드라마적인 스토리라인은 미미하게 작동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설처럼 남성인물들은 여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적진으로 뛰어들거나 전투에 참여한다기보다 ‘나약한 여성’을 구출해야할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다. 민호와 독고선의 구출 서사에서 스파이였던 독고선이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 모든 남성성은 고결하고 순결한 것으로 강조된다. 처음에 우주선에 스파이로 등장하며 악역을 맡았던 인물인 독고선이 여성이 위기에 처하자 적진에 침투해서 죽으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남성성은 고결함의 상징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여성은 부차적이고, 남성의 의무 수행에 방해적인 요소로 기능한다. 나약하고 위기에 처한 ‘간힌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을 혐오스럽고 배제해야 하는 타자로 매개하면서 남성성을 이상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우주항로』에서 조주필의 딸인 혜숙도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로서 서사의 시작에 등장하지만 전체 서사에서 역할이 없다가 마지막에 민호가 지구로 귀환할 때 이상한 신호음을 잡고 조주필에게 알려주는 단역으로 존재할 뿐이다. 『금성탐험대』에서 미국 통신원인 최미옥과 소련 통

33 존 베이언, 앞의 책, 105면.

신원인 나타샤도 부차적인 인물로만 기능한다는 점에서 소녀인 여성들은 소설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변적인 인물로만 기능한다는 한계가 있다. 고진이 “다급해진 여자의 목소리”(215면)를 듣고 최미옥이든 나타샤이든 여성 인물을 구하러 출동하는 것도 영웅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서사적 장치이다. 과학소설에서 여성은 적진에 “갇힌 몸”(217면)이며 나약한 타자로 상징화 된다. 이는 1950년대 전쟁의 상처로 인해 소설에서 불구자의 이미지로 변형된 남성성이 제국주의적인 강인한 남성성의 이미지로 새롭게 귀환하는 데 기여한다. 소련 우주선에서 만난 나타샤는 미국 비행사로 납치된 고진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첫눈에 그의 매력에 끌리는 인물로 기능하는데, 이는 강력하고 선진 과학을 이룬 미국을 선망의 시선으로 보는 주변국들이 선택해야 할 지향점처럼 제시된다.

또한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는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³⁴의 문법에 맞게 우주선을 타고 탐험하는데 ‘화성’과 ‘금성’에서 강력한 선진 기술을 가진 적과 경쟁하며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스펙터클하게 전개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 스릴러 영화가 인기를 모으며 액션이 특히 강조되었다. 스펙터클한 장면에서는 권총, 격투 신, 강인한 육체 등이 스릴러 영화의 장르 이미지를 구축하였다면,³⁵ 우주를 다룬 과학소설에서 강렬한 액션과 남성다움의 결합은 장르의 관습이 전투하는 남성성에 고착되는 것과 연결된다. 전투 장면에서 남성들의 액션에 대한 묘사는 강인함을 이미지화하는 장치이고, 리더로서 자질을 수행하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임을 환기

34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는 SF의 하위 장르로서 1920~30년대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대부분 영웅적 인물이 우주를 배경으로 적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지구를 구한다는 플롯을 반복한다. 서부극을 ‘호스 오페라(horse opere)’, 통속극을 ‘소프 오페라(soap opera)’로 명명한 것처럼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는 상투적으로 서사가 반복되고, 판에 박힌 활극, 감정 과잉의 센티멘털리즘 등 흥미만을 추구하는 작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고장원, 『스페이스 오페라란 무엇인가?』, 부크크, 2015, 25~27면.

35 이길성, 「해방이후 서구 스릴러의 한국적 수용」,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 실천, 2011, 332면.

시킴을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이처럼 과학소설은 여성을 보호해야 할 타자로 호명하면서 동시에 구원자인 남성이 1960년대 팽창주의 욕망과 함께 우주개척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재상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남성성에 대한 이미지의 재구성은 외계인을 타자로 묘사하는 장면에서도 반복, 변주된다. 『우주항로』에서 화성인 지도자는 “늪은 개구리”(157면)라는 흉물스러운 동물성을 지닌 이미지로 비하된다. 『금성탐험대』에서 알파성인의 모습은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오리, 도널드덕과 비슷’하니 “눈과 입이 유난히 크고, 코는 구멍이 벌어진 듯, 귀는 당나귀 귀처럼 양옆으로 솟아 있다. 이런 윗머리를 무거운 듯이 가슴 위에 얹고 눈을 굴리는 꼴이 우스웠다”(235면)의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동물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동물적인 이미지로 표상화된다. 이처럼 외계인인 화성인과 알파성인에 대한 묘사는 혐오스러운 동물에 비유되거나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표상된다는 점에서 제국주적 남성성이 식민지인의 이미지를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자민족중심주의³⁶로 바라보던 오리엔탈리즘³⁷의 시선과 유사하다. 외계인에 대한 타자화는 그들의 문화를 묘사할 때도 혐오스러움, 이질적인, 기묘하고 낯선 등의 시각적이고 차별적인 이미지와 연결된다. 『우주항로』에서 화성인들이 마시는 ‘성스러운 술’의 맛에 대한 묘사는 화성인의 문화를 천박한 하위문화처럼 비하하고 야만적이며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도자가 먼저 잔을 들자, 옆의 화성인도 같은 말을 외며 잔을 비웠다. 민호와 옥경도 따라서 기묘한 말을 흉내내며 잔을 들 수밖에 없었다. 민호와 옥경은 잔을 내던지고 발을 구르며 경충경충 뛰었다. (171면)

36 존 베이넨, 앞의 책, 65면.

37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1~175면 참조.

“그렇지만 그런 술을 마시고 날뛰지 않을 지구인이 어디 있겠어. 헛바닥이 타는 것 같고 불덩어리가 튀어나오는 것만 같은데 어떡해. 눈물 콧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뭐야.”

옥경은 아직도 헛바닥이 탄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172면)

텔레파시와 거대한 선진 문명을 이미 오래전에 이룩했던 화성인이 손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에 대한 묘사이다. 화성인이 조상의 얼을 기리며 나눠 준 술이 지구인의 입맛에는 “눈물 콧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야만적인 체험으로 서술된다. 지구인들이 술잔을 집어던지며 날뛰는 이 장면은 제국주의 남성들이 식민지 개척에 나섰을 때 식민지의 전통적인 음식에 대해 야만적이고 역겨운 음식으로 비하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이는 원주민인 흑인 남성성이 ‘고결한 야만인’으로 찬미 받는 한편 희화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우주항로』에서는 화성인 지도자의 침착함이나 합리적인 리더십, 부드러움, 따뜻함 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듯한 서술을 하면서도 화성인의 문화와 인물 묘사 등에 있어서는 야만적이고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차별적 이미지를 동원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화성’이라는 공간에 대한 설정을 할 때도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비정상성의 토포스, 즉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용광로 등으로 묘사된다. 전투를 하는 장면에서도 마치 서구인들이 동양이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공격할 때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나의 마음의 얼들아, 듣거라. 드디어 마가스인은 신성한 우리의 굴 속까지 쳐들어왔다. 조상이 물려 준 신성한 굴이 다른 별에서 온 놈들에게 짓밟히려고 한다. 이 굴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내 명령을 따르라! 화성 위에서 외계의

적을 몰아내자. 나의 얼굴들아, 용감히 전진하자!”

지도자의 말이 끝나자, 화성인들은 다시 함성을 지르며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다. 그리고는 지휘 사령관인 듯한 젊은 화성인이 지도자를 모셔다 악어 비슷한 동물이 이끄는 수레에 태우고 굴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188면)

(중략)

그동안에 맹수들은 벌써 한박사와 허조종사에게 덤벼들기 시작하였다. 한박사와 허조종사는 당황하였지만, 덤벼드는 맹수를 한 놈씩 쏘아 놓았다. 맹수들은 피에 주린 듯 사납게 덤벼들었다. 마침내 한박사가 맹수에게 깔렸다.

“이 봐요. 짐승을 가뉘요! 저 분은 지구인입니다. 마가스인이 아녀요!”

민호는 화성인 지도자에게 소리지르며, 자신이 짐승들 속으로 뛰어 들었다. 민호는 열충을 휘둘러 맹수들을 닥치는 대로 쏘아 놓았다. (189면)

위의 전투장면은 화성을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라기보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시 밀림 속과 같은 공간으로 상상하게 하고, 전투에 동원된 동물도 ‘악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괴물 같은 짐승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금성탐험대』에서는 적의 이미지를 “올빼미 같은 생긴 괴금”의 추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당대 과학소설의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과학소설에서 전투장면에 대한 묘사는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투라기보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밀림의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민지 개척에 나선 제국주의적 상상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밀림처럼 묘사된 전장에 대한 토포스적 상상력은 젊은 지도자의 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할 뿐이다. 『우주항로』에서 민호는 한박사가 위협에 처하자 맹목적으로 짐승들 사이로 뛰어들어 열충을 휘둘러 맹수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강인한 남성적 영웅으로 이미지화된다. 이는 제국주의 남성성이 식민지 원주민들보

다 우월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인인 민호가 타자인 화성인보다 우월한 존재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모험담에서 남성성과 인종의 문제는 상호 구성적인데, 전투를 중지시키는 화성인 지도자의 경우 원주민의 흑인 남성성처럼 ‘고결한 야만인’의 이미지로 찬미 받지만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런 이미지로 희화화³⁸ 된다는 점에서 양가적 태도를 드러낸다.

에당초 지도자는 맹수를 풀어 마가스인을 쫓고, 그들이 후퇴할 때 이쪽에서 공격할 작전을 세웠다. 이런 작전 계획은 뜻하지 않은 일로 빗나가고 만 것이다. 화성인 지도자는 이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 (190면)

여성이나 외계인의 타자화는 지도력을 갖춘 완전한 남성성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우주항로』에서 민호나, 『금성탐험대』에서 고진의 지도력은 탁월하고 지혜로운데, 이런 정신적 가치는 남성 젠더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호의 지도력은 전투에서 용기를 발휘할 뿐 아니라 화성인과 마가스인의 전투를 중재할 용기를 상징하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때로는 위협을 무릅쓰고, 분별력 있게 화성인과 마가스인 사이에서 협상의 미를 보여주는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그들은 모두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나 한사람이 죽어서 화성 위에 평화가 온다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196면)

민호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총이 두렵지 않은 듯이 그냥 울부짖었다.

³⁸ 존 베이넨, 앞의 책, 66면.

“여러분, 전쟁은 파괴요, 평화는 번영입니다. 만일 마가스인이 이 살상 무기를 쓴다면, 이 굴 속에 있는 생물은 모조리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사용한 당신들도 죽어야 합니다. 다시는 당신들의 기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호가 마가스인 사령관에게 소리쳤다. (197면)

젊은 지도자인 민호는 제3자의 전쟁이 벌어지는 화성에서 “지도력과 권위를 분별 있고 공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남성다운 귀족성”의 자질을 표상하는 인물이다.³⁹ 반면 화성인은 맹수를 풀어 공격하는 잔혹성과 광포함을 지닌 위험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재현되고 있다. 이처럼 1960년대 과학소설은 ‘화성’이나 ‘금성’을 아프리카의 밀림 정도로 상상력을 제한하면서 영웅적 소년의 행동을 일반화하고, 제국주의적인 남성성을 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과학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 1950~60년대 불구화된 남성성을 제국주의적인 강한 남성성으로 다시 이미지화하고, 남성의 활력을 찬양하고 수행하는 남성, 전투 중인 남성성이 숭고하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급진적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전쟁만큼이나 강한 남성성을 필요로 했고 이는 과학소설에서 이상적 남성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1960년대는 팽창주의 욕망과 함께 우주개척에 대한 꿈이 인류 공통의

³⁹ 존 베이언, 위의 책, 62면.

소망처럼 유행하며 맹목적으로 ‘우주’에 열광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 한나 윌은 『우주항로』와 『금성탐험대』 등의 작품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소설을 창작하였다. 당대 두 작품은 『가톨릭소년』과 『학원』에 실려 많은 대중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 시기 창작된 과학소설은 두 가지 서사적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과학소설에서는 팽창주의 욕망과 소년영웅의 귀환을 통해 강인한 남성성을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과거 제국주의적인 남성성의 문화가 병사와 영웅의 이미지로 남성성의 문화를 구성했다면, 195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폐해로 인해 남성성이 위축되면서 병사와 희생자(불구자)의 이미지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로 오면 과학소설을 통해 소년영웅이 귀환하고 팽창주의 욕망이 유토피아적 가치로 전유되어 나타난다. 다만 모험의 장소가 지구에서 우주인 화성과 금성으로 공간을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남성인물들은 불완전한 타자(여성, 외계인, 낯선 것)들과의 분리를 통해 완전한 남성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남성중심의 문화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과학소설에서 여성은 통신원과 같은 부차적인 인물로만 기능하며, 이들은 외계인인 적에게 갇힌 몸이 되거나 우주선에서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존재한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적에게 납치되어 남성들이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까지 침입하는데 죽음을 각오한 투쟁을 통해 지도자적 남성성이 강조된다. 또한 외계인은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늪은 개구리’나 디즈니에 나오는 ‘오리’ 같은 우스꽝스럽고 징그러운 동물적인 이미지로 비하된다. 이런 차별적 묘사는 고결한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과 외계인을 타자화한 것이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재건의 슬로건 아래 1960년대부터 급

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경제발전에 대한 욕망은 한국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남성성이 필요하고 남성의 힘이 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모아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과학소설에서 우주에 대한 팽창주의 욕망과 함께 강인하고 완전한 남성성을 문화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한낙원, 『잃어버린 소년』, 『연합신문』, 1959~1960.
_____, 『잃어버린 소년』, 배영사, 1963.
_____, 「우주항로」, 『가톨릭소년』, 1962~1968.
_____, 『우주항로』, 계몽사, 1987.
_____, 「금성탐험대」, 『학원』, 1962~1964.
_____, 『금성탐험대』, 창비, 2013.

2. 논문 및 평론

- 김남혁, 「1950년대 미국의 한국전쟁 재현물에 드러난 개인과 집단의 특성—제임스 설터의 소설 『사냥꾼들』과 할리우드 영화 <추격기>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7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6, 165~199면.
- 김이구, 「과학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창비어린이』 3(2), 창비어린이, 2005.6, 156~171면.
- 김지영, 「한국 과학소설의 장르소설적 특징에 관한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32,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375~397면.
- _____, 「1960-70년대 청소년 과학소설 장르 연구—『한국과학소설(SF)전집』(1975)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35, 동남어문학회, 2013.5, 125~149면.
- 권혁준, 「SF아동청소년문학과 과학적 상상력—SF소설의 개념, 특성, 범주와 한국 SF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시공간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1호, 2017.12, 7~39면.
- 모희준, 「냉전시기 한국의 과학소설에 구현된 국가관 연구」, 전문대 박사논문, 2015, 1~154면.
- 손진원, 「1960년대 과학소설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7, 1~83면.
-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전쟁소설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14, 한국현대문학학회, 2003. 12, 75~109면.
- 안철구, 「수수계끼에 싸인 우주」, 『가톨릭소년』, 1966.1, 가톨릭소년사, 74~78면.
- 임지연, 「초기 한낙원의 과학소설에 나타난 '소년'의 의미」, 『한국언어문화』 6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279~305면.
- 최예순, 「초창기 SF 아동청소년문학의 전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12, 41~88면.

3. 단행본

고장원, 『스페이스 오페라란 무엇인가?』, 부크크, 2015.

이길성, 「해방이후 서구 스릴러의 한국적 수용」,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이론과 실천, 2011.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에른스트 카시러, 박완규역, 『문화과학의 논리』, 길, 2007.

존 루이스 개디스, 정철·강규형 역, 『냉전의 역사』, 에코리브르, 2010.

Abstract

Expansionistic Desire and Masculinity Found in Scientific Novels Written in the 1960's

—Focusing on The Woojuhango and Geumseongtamheomdae

by Han Nak-won

Jang Su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an Nak-won's 『Woojuhango』 and 『Geumseongtamheomdae』 to see how the aspects of masculinity were constructed culturally in children's science novels of the time and how they formed images then.

In the 1950's to 60's when there was the Cold War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the public's desire that could be summed up as enthusiasm, trends, and hypnosis about pioneering the universe was distributed and consumed in the forms of SF through newspaper or magazine's articles, movies, the television, radio, or printed media. As children's SF narratives triggered expansionistic desire about pioneering the universe, two narrative characteristics were revealed then.

First, with expansionistic desire and the boy hero's return, they tried to reestablish powerful masculinity culturally. Previously, the imperialistic culture of masculinity constructed the culture of masculinity with the images of soldiers and heroes, but the 1960's, masculinity got withered due to the harmful consequences of the war, and their images were changed to soldiers and the handicapped. In the

1960's, however, boy heroes returned through SF novels, which revealed expansionistic desire. Yet, it was just about the change of places for adventure from the Earth to the universe, for example, the Mars and Venus.

Second, through separation from incomplete others, they tried to establish the perfect image of masculinity and reinforce male-oriented culture. In SF novels, women function as an auxiliary character like a correspondent and exist as a passive female image playing roles as a being either trapped by alien enemies or just waiting in the spaceship. Particularly, when the female characters are kidnapped by the enemies, men penetrate deep into the enemy's position to save them, and here, through their struggle in spite of death, their masculinity as a leader is highlighted. Also, although they have achieved great civilization, aliens are depicted there as either ridiculous or gross animal images, for instance, 'an old frog' or 'a duck' in Disney. This is to stress the nobility of masculinity by describing the images of women and aliens as others contrastively.

As examined above, in the 1960's, there was an overflowing social atmosphere demanding powerful masculinity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as rapidly as possible. In fact, SF narratives contributed to creating the images of expansionistic desire towards the universe as well as complete and powerful masculinity culturally then.

■ Keywords: SF Narratives, Expansionistic Desire, The Universe, Male-oriented Culture, The war, The boy, Hero

■ 논문접수일: 2018. 11. 15. / 심사기간: 2018. 11.22~12.02. / 게재확정일: 2018. 12.05.